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8, Vol. 31, No. 4, 167-197

중년 부모가 지각한 자녀 의미의 양면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조 설 애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중년 성인이 지각한 대학생 자녀의 의미의 양면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의미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매개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 210명 대상으로 예비 연구에서 선정한 문항과 자녀 가치 척도 문항을 추가해 설문조사 후 탐색적 요인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1의 결과, 자녀 의미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상위 2요인으로, 긍정적 의미는 사랑의 대상, 돌봄의 대상, 밀착의 대상의 하위 3개 요인으로, 부정적 의미는 부담의 대상과 제약의 대상의 하위 2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 216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의미가 행복에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2의 결과, 어머니들이 아버지에 비해 자녀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모두 높았다. 그리고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긍정적 관계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자녀의 부정적 의미는 직접적으로 행복을 낮추면서도, 긍정적 관계의 질을 낮추고 부정적 관계의 질을 높이는 과정을 매개로도 행복을 낮추어 자녀 의미의 양면성이 행복에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가족의 의미, 자녀의 의미, 행복, 부모 자녀 관계, 중년기

---

* 이 논문은 조설애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4886).

† 교신저자: 정영숙,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 심리학과,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E-mail: yschong@pusan.ac.kr

www.kci.go.kr

평범한 사람들의 긍정적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둔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은 주요한 주제가 되어왔다. 대표적인 긍정심리학자인 Seligman (2002)은 행복한 삶(happy life)이란 즐거운 삶(pleasant life), 의미있는 삶(meaningful life), 관여하는 삶(engaged life)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하였는데, 가족 관계는 우리를 더 즐겁고, 의미있고, 타인에게 관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Birditt, Fingerman, & Zarit, 2010; Hicks & King, 2009b; Mikulincer & Shaver, 2013). 특히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한국에서는 가족관계가 행복의 필수적 요소이며(김의철, 박영신, 박선영, 2012), 삶의 의미를 주는 주요한 원천이기도 하다(박선영, 2013; 정영숙, 조설애, 2013)

가족관계 중 부모 자녀 관계는 가장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로 전생애 동안 가장 근접하게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Bornstein & Cheah, 2006). 부모 자녀 관계는 나이가 듦에 따라 특성이 양방향적으로 변화하므로(Trommsdorff, 2006), 부모 자녀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5세에서 65세 중년기에 속하는 부모는 이제까지의 돌봄의 역할에서 조력자의 역할로 변화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는다(Cooney, 1997). 중년 부모의 자녀도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좀 더 대등한 입장에 서기를 원한다(De Goede, Branje & Meeus, 2009). 한국은 서구와는 달리 경직된 교육제도와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초중기 청소년기인 중고등학생보다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의 갈등을 더 많이 겪는다(정현숙, 2009). 뿐만 아니라 대학생 시기가 성인으로서의 역할 준비와 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장휘숙, 2000).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를 둔 중년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중년 부모와 대학생 자녀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관계 갈등, 자율성 충족과 적응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 친밀감과 분리 개별화 등의 주제들을 다루어 왔다(김인기, 이제경, 2009; 채경선, 황현주, 2014;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Parke & Ladd, 2016; Petts, 2014; Steinberg, 2001). 그러나 관계의 전환기를 맞은 중년 부모에게 청년 자녀가 어떤 존재적 '의미(meaning)'를 갖는지, 이 의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의미'란 개인이 특정 대상이나 경험 및 대인관계 등의 관련성에 대해 갖는 정신적 표상을 뜻하는데(Baumeister, 1999), '자녀의 의미(meaning of children)'는 자녀라는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행복과 의미의 원천인 가족 관계, 중년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전환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년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의미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중년 부모가 지각한 자녀 의미의 양면성

중년 부모는 자녀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지각하고 있는가? 한국 부모는 자녀를 자기 자신이자 분신,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 자신의 권리나 욕구를 포기하며 희생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김세영, 정태연, 2013; 이운기, 2005). 그리고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 보답으로 효도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본다(김의철, 박영신, 탁수연, 2002;). 자녀에 대한 이런 헌신적 사랑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큰 부담이 포함되어 부모에게

www.kci.go.kr

자녀가 양면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의 의미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거의 없지만 자녀 가치 연구, 부모됨의 동기 연구, 부자유친성정 연구 등 일부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이런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자녀 가치(value of children)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중국, 인도, 노르웨이, 체코, 미국, 가나 등 다수 국가에서 자녀의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보고하고 있다(김미숙, 2015; 박영신, 김의철, 2007; 박영신, 김의철, 김미숙, 2012; Albert & Trommsdorff, 2014; Mayer, Albert, Trommsdorff, & Schwartz, 2005; Nauck, 2007; Nauck & Klaus, 2007; Schwartz, Chakkarath, Trommsdorff, Schwenk, & Nauck, 2001; Schwarzt, Trommsdorff, Kim, & Park, 2006; Trommsdorff, 2001, 2006, 2009; Trommsdorff & Nauck, 2005, 2006, 2010).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며, 심리적 즐거움과 성취의 기쁨을 주는 등 긍정적 가치가 있지만, 부모의 개인적 발전이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경제적 ·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등 부정적 가치도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녀의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가 모두 높은 특성을 보여(김미숙, 조성호, 최은진, 홍석표, 이주연, 강지원, 권소일, 2014) 자녀 의미의 양면성을 시사한다.

둘째, 자녀 의미의 양면성을 시사하는 선행연구로 부모됨의 동기(motivations of parenthood) 연구를 들 수 있다. 부모됨의 동기 연구들도 개관해보면 긍정적 동기와 부정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김연숙, 2014; 박경애, 1992; 유계숙, 정현숙, 2002; 유안진, 김연진, 1987; Kirchner & Seaver, 1977; Rabin, 1965; Veevers, 1973). 부모가 되는 일은 애정과 인생의 의미를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등 긍정적 동기가 있지만,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게 하며, 양육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부모 자신의 교육 및 직업상의 제약을 주는 등의 부정적 동기도 주어 부모가 되는 일이 양면적 동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한국의 부모 자녀 관계의 독특성에 초점을 둔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연구에서 자녀의 의미의 양면성을 찾아볼 수 있다. 최상진(1994, 2000)은 한국의 부모 자녀 관계를 '부자유친성정', 부모 자녀가 서로 자애와 효를 기본으로 감정과 의식의 동일체적(同一體, oneness) 친애관계라고 하였다. 중고등학생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행복감과 든든함 · 기대감을 주고, 부모들이 자신들을 분신으로 생각하며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희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을 괘씸하고 못마땅하며 밉기도 하고 부담과 괴로움을 주는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답하여, 양면적인 특징을 시사한다(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면 문화보편적으로 부모에게 자녀 의미의 양면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한국에서는 한국만의 부모 자녀 관계의 고유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부모에게 자녀가 갖는 의미의 양면성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자녀 가치 연구와 부모됨의 동기 연구는 다수가 예비 부모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거나(오정숙, 박영신, 김의철, 2007; 유계숙, 정현숙, 2002; 조복희, 정민자, 김연하, 2007; Kirchner & Seaver, 1977) 영아를 키우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김연숙, 2014; 박주현, 2012; 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그러므로 가족주기의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고려

www.kci.go.kr

하지 못하였으며, 부모 양쪽 모두가 경험하는 자녀 의미를 다루지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적절하고 유일한 양육자로 보는 사회적 기대가 존재하는데, 어머니는 자신보다 자녀를 더 우선으로 두고 관심과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Hattery, 2001). 실제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양육과 교육 역할이 적고(김진희, 2005) 이는 어머니가 취업했을 때조차 큰 차이가 없다(이영미, 민하영, 2006). 그러므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경험하는 자녀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살피고 비교해야 한다.

둘째, 자녀 가치 연구와 부자유친성정 연구들은 대개 자녀의 긍정적 가치에 치중되었거나(문순덕, 2007;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10; Nauck & Klaus, 2007; Mayer et al., 2005) 부모를 가깝고 고맙게 느끼는 상황에 초점을 두었거나(이장주, 2002) 자녀의 입장에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연구해왔기 때문에(김지원, 이정윤, 2014; 박수영, 이재연, 2005; 박윤조, 김성현, 2012; 이장주, 2002; 최명선, 문은미, 2009;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최인재, 2005),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의미의 양면성을 살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한계점들을 고려해보면, 부모 자녀 관계의 전환기인 중년 부모 모두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한국인만의 자녀의 의미를 살펴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 중년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자녀의 의미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면성이 존재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자녀의 의미의 양면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자녀의 양면적 의미는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 자녀 가치 연구, 부모됨의 동기 연구 등을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각이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윤조, 김성현, 2012; Lowenstein, 2007).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부모들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했고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부모들은 덜 건강했다(Whitbeck, Hoyt, Tyler, 2001), 자녀와의 만족감을 높게 지각하는 부모는 삶의 만족감이 높았으며(안지선, 정혜정, 2012), 자녀와 친밀하다고 지각하는 부모는 행복도도 높았다(곽금주, 민하영, 김경은, 최지영, 전숙영, 2011). 반면 자녀에 대한 애정을 지각하면서도 짜증이나 원망감도 많다고 지각하는 부모는 삶의 질이 낮았고(Lowenstein, 2007), 심리적 안녕감도 낮았다(Fingerman, Pitzer, Lefkowitz, Birditt, & Mroczek, 2008). 이런 연구결과는 중년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의미의 양면성 또한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의 의미의 양면성이 부모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부모가 지각한 자녀 의미의 양면성이 행복에 어떤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각은 부모의 행동과 자녀와의 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권용은, 김의철, 2004; Rothbaum, Pott, Azuma, Miyake, & Weisz, 2000). 자녀의 긍정적 가치를 높게 보고하는 부모들이 양육 스트레스가 낮고(최미경, 김영희, 정혜숙, 2014), 더 애정어리고 합리적 설명 등 더 긍정적 양육 행동을 많이 하고(강란혜, 2000), 더 반응적이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하며(박주현, 2012), 자녀의 관점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9). 자녀의 긍정적 가치를

www.kci.go.kr

높게 지각하는 부모는 자녀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정미라, 강수경, 2013) 자녀의 독립성을 더 지지하였다(Mayer 등,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가 지각한 자녀 가치에 따라 부모의 행동과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달라짐을 보여주므로,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의미 내용에 따라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은 부모의 행복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Knoester, 2003), 자녀의 의미의 양면성이 행복에 미치는 과정을 살필 때,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매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부모 자녀 관계의 질에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같은 긍정적 측면과, 갈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포함되어 있어(Settersten, 2003), 부모의 건강과 행복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ntonucci, Akiyama & Takahashi, 2004; Bradley & Cafferty, 2001; Shaver & Mikulincer, 2007). 자녀와의 친밀함이 낮고 갈등이 많은 중년 부모는 신체적으로 덜 건강하고(Whitbeck, Hoyt, & Tyler, 2001), 더 우울하고(송지은, Marks, 2006), 덜 행복했으며(Greenfield & Marks, 2006), 더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고하였다(Umberson 1992). 반면 자녀와 유대관계가 좋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부모들은 덜 우울하고(이선미, 김경신, 2012),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순미,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 부모가 지각한 자녀 의미의 양면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매개효과를 살피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가장 가까운 친밀 관계인 가족관계가 본질적으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여 양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각기 다른 차별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중년 부모에게 대학생 자녀가 갖는 이중적 의미의 구조를 확인하고 이것이 부모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이 어떤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년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의미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양면성이 나타나는가?

2. 중년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의미의 양면성이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과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1. 중년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긍정적 의미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2. 중년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부정적 의미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해, 연구 1에서 예비연구의 문항들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자녀 의미의 양면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자녀 의미의 양면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www.kci.go.kr

예비 연구

자녀의 의미를 측정할 예비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부산 소재 4년제 대학의 심리학 강의 수강생의 중년 부모 131명(남 60명, 여 71명, 평균 연령 52.23세)을 대상으로 '자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총 반응 수는 319개, 1인당 반응 수는 2.43개였다.

수집한 답변들을 발달심리학 전문가 1인, 사회심리학 박사 1인, 발달심리학 박사과정생 3인 등 5인의 평정자가 5번에 걸쳐 토의 후 유사성을 바탕으로 범주별로 분류하여 35개의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연구 1

연구 대상

부산과 울산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이하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친교 모임, 동기회 사무실 등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210명(남 106명, 여 10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절대적 표본 크기는 200정도가 적절하며(Comrey & Lee, 1992), 측정변수와 표본 크기의 비율을 5:1 이상이어야 하므로(Tabachnick & Fidel, 2007), 연구 1의 표본 크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55.78세(SD=5.74), 평균 자녀수는 2.09명이었다(SD=.73).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종교는 불교 57.6%(121명), 무교 23.8%(50명), 기독교 9.0%(19명), 천주교 7.1%(15명), 기타 2.4%(5명) 순이었다. 경제 상태는 보통 54.3%(114명), 동년배보다 나쁨 21.9%(46명), 동년배보다 좋음 12.9%(27명), 동년배보다 매우 나쁨 7.1%(15명), 동년배보다 아주 좋음 3.3%(7명)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56.7%(119명)로 가장 많았고, 대졸 20.0%(42명), 중졸 16.7%(35명), 초졸 3.3%(7명), 대학원졸 이상 1.9%(4명) 등이었다. 지각된 건강 수준은 보통이 50.5%(106명), 좋음 37.6%(79명), 좋지 않음 6.7(14명), 매우 좋음 3.3%(7명), 매우 나쁨 1.4%(3명) 등이었다.

측정 도구

자녀의 의미

예비 연구를 통해 선정한 자녀의 의미 35문항을 기본으로, 자녀의 의미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한국인의 자녀 가치 질문지(박영신, 김의철, 2007)의 긍정적 자녀 가치와 부정적 자녀 가치 요인에 속하는 20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총 55문항으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

탐색적 요인 분석 후 요인들의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박선영(2013)의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MMLS) 중 자녀 양육 및 부모되기 요인 측정하였다.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는 한국인의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총 10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자녀 양육 및 부모 되기 요인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자녀가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www.kci.go.kr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므로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자녀 양육 및 부모되기 요인'은 부모되기의 긍정적 삶의 의미를 반영한 측정이라고 볼 수 있다. 평정은 각 삶이 얼마나 자신의 삶과 일치하는지 5점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신뢰도는 .80이었다.

삶의 의미

자녀의 의미 요인들의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반적인 삶의 의미 또한 측정하였다.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4)가 개발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한국에서 원두리, 김교헌, 권선중(2005)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의미의 존재와 의미의 추구의 두 하위 요인으로 요인당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미의 존재'와 관련된 문항으로는 '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의미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등이 있으며, '의미의 추구'와 관련된 문항으로는 '나는 내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나는 항상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등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신뢰도는 하위요인인 삶의 의미 존재 .79, 삶의 의미 추구는 .86이었고, 전체 삶의 의미의 신뢰도는 .88이었다.

우울

자녀의 의미 요인의 예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판 CES-D(Center of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의 축약형 1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사용된 척도로, 허만세, 박병선, 배성우(2015)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모든 일들이 힘겹게 느껴졌다.' 등이 있으며 4점 척도로(1=극히 드물었다, 4=거의 대부분 그랬다) 평정하였다. Cronbach's α는 .80이었다.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의 의미 요인의 예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자녀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단일문항으로 10점 척도(1=불만족, 10=만족)에서 평정토록 하였다.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

자녀의 의미 요인의 예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Pillemer와 Suitor(2002)가 개발하고 문정희와 안정신(2014)이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자녀'로 수정하여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을 측정하였고 총 9문항으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신뢰도는 .91이었다.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McCubbin, Petterson과 Wilson(1979)이 개발한 가족스트레스 척도(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 and Change)를 안지연(1992)이 번안한 것 중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직접적 스트레스를 평정하는 2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신뢰도는 .80이었다.

www.kci.go.kr

친밀감

친밀감은 정여진(2011)이 Brennan과 Shaver (1995)가 제작한 친밀관계경험 검사(ECR)을 자녀를 대상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녀와 친근하게 지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자녀는 나와 내 바람을 잘 이해한다.' 등 12문항으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친밀감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연구 1 결과

자녀의 의미의 구조를 확인하고 최종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55개 문항의 응답결과를 SPSS 23.0을 사용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추출된 요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계적 2요인 모델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검증한 자녀의 의미 요인의 공존 타당도 확보를 위해 한국 삶의 의미 척도 중 부모되기 의미 요인 및 전반적 삶의 의미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예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복 관련 요인으로 우울, 자녀와의 관계의 질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녀와의 관계만족, 친밀감,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 및 관계 스트레스와 상관을 분석하였다.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문항분석을 통해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다. 왜도는 최대 절대값 1.01 이하, 첨도는 3.10 이하로 나타나, 왜도<2, 첨도<4 이므로 정규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자녀의 의미의 구조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 요인 추출법과 사각회전 promax를 사용하였다. KMO (Kaiser-Meryer-Olkin) 지수는 .904로 문항 간 상관이 적절하였고, Bartlett 검증 결과도 적합하였다[$\chi^2(1485)=7276.899$, $p<.001$].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은 6개 요인이었지만, 스크리도표(Scree plot)에서 5개 요인에서 아이겐 값이 갑자기 작아지고 평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 수는 5개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요인 분석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문항을 제외하였다. 먼저 한 요인에 너무 많은 문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10개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둘째, 2문항 이하로 구성된 요인은 제외하였고(Zwick & Velicer, 1986), 셋째, 두 개 요인에 부하된 문항의 경우 차이가 1.0 이상 나지 않는 문항과, 공통성이 .40 미만인 문항도(Velicer & Fava, 1998) 제외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요인 수를 5개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최종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KMO(Kaiser-Meryer-Olkin) 지수는 .893로 적절하였고, 구형성 검증을 위한 Bartlett 검증 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chi^2(325)=3103.742$, $p<.001$]. 최종 선정 문항은 총 26문항으로 이는 전체변량의 64.7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자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키우는 즐거움을 주는 고마운 대상으로 여기므로, '사랑의 대상'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자녀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에

www.kci.go.kr

대한 내용이므로, '부담의 대상'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다음 세대인 자녀를 잘 돌보고 키워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 '돌봄의 대상'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겨 '밀착의 대상'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자녀로 인해 자신이 겪는 여러 사회적 제약들을 반영하므로 '제약의 대상'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각각 1요인은 8.83, 2요인은 4.00, 3요인은 1.66, 4요인은 1.33, 5요인은 1.00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설명량은 각각 33.95%, 15.37%, 6.39%, 5.13%, 3.85%였다. 이렇게 확인된 5개 요인과 문항,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과 문항 제외 시 신뢰도 값 및 공통분 값을 모두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80부터 .92로 양호하였으며,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도 .43부터 .84까지 양호하였다.

5개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자녀의 의미 5개 요인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요인 1과 요인3[r=.66, p<.01], 요인 4[r=.47, p<.01]은 서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 2와 요인 5가 서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61, p<.01]. 반면에 요인 1, 3, 4와 요인 2, 5는 각기 부적 상관이거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들 간 상관이 .3~.7 사이일 때 구성개념간 적절한 판별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보므로 (Anderson & Gerbing. 1988), 5개 하위 요인 간에는 적절한 판별 타당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와 5개 요인의 상관관계를 종합하면, 중년 성인 부모가 지각한 자녀 의미는 사랑, 돌봄 및 밀착의 대상으로 '긍정적 의미'도 있는 반면, 부담과 제약을 주는 대상으로 '부정적 의미'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중년 부모의 자녀의 의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N=210)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성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	문항 제외시 신뢰도
요인 1. 사랑의 대상 (10문항, Cronbach's α=.92)								
26. 자녀는 나의 기쁨이자 즐거움이다.	.814					.711	.757	.902
32. 자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808					.669	.763	.902
18. 자녀는 뿌듯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이다.	.790					.642	.765	.902
30.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788					.642	.744	.904
17. 자녀는 내게 고마운 사람이다.	.774					.621	.755	.902
27. 자녀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767					.625	.700	.906
36. 자녀를 키우는 재미가 있다.	.692					.492	.672	.907
19. 자녀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다.	.663					.487	.626	.910
2. 자녀는 나의 보물이다.	.610					.520	.582	.914
38. 자녀가 있으면 든든하다.	.561					.398	.543	.914

www.kci.go.kr

표 1. 중년 부모의 자녀의 의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N=210) (계속)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성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	문항 제외시 신뢰도
요인 2. 부담의 대상 (4문항, Cronbach's α=.80)								
50. 자녀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다.		.789				.626	.670	.716
51. 자녀로 인해 부부 관계가 소홀하게 된다.		.690				.542	.571	.765
49. 자녀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678				.473	.615	.744
47. 자녀를 돌보느라 내 생활이 없다.		.666				.456	.582	.760
요인 3. 돌봄의 대상 (5문항, Cronbach's α=.81)								
8. 자녀는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대상이다.			.729			.547	.651	.752
7. 자녀는 내 다음 세대이자 미래의 주역이다.			.709			.511	.642	.757
4. 자녀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키워야 하는 존재이다.			.667			.502	.596	.771
6. 자녀는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다.			.625			.474	.568	.778
5. 자녀가 나보다 더 잘되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608			.424	.520	.791
요인 4. 밀착의 대상 (3문항, Cronbach's α=.80)								
10. 자녀는 나의 분신이다.				.866		.761	.757	.601
3. 자녀는 또 다른 나이다.				.729		.546	.620	.754
14. 자녀는 내 생명과 같다.				.654		.525	.569	.806
요인 5. 제약을 주는 대상 (4문항, Cronbach's α=.86)								
54. 자녀양육 때문에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939	.890	.842	.758
53.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성공적으로 하기 어렵다.					.839	.743	.726	.810
55. 자녀양육으로 바빠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없다.					.783	.670	.763	.795
52. 전문인으로서 성공하는데 자녀가 방해된다.					.531	.432	.499	.894
고유치	8.83	4.00	1.66	1.33	1.00			
설명 변량(%)	33.95	15.37	6.39	5.13	3.85			
누적 설명 변량(%)	33.95	49.32	55.71	60.84	64.70			

www.kci.go.kr

표 2. 자녀의 의미 5개 요인 간 상관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 2	-.35**			
요인 3	.66**	-.29**		
요인 4	.47**	.05	.41**	
요인 5	-.17*	.61**	-.18	-.01

*p<.05, **p<.01, ***p<001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인 1과 요인 3, 요인 4는 자녀의 긍정적 의미를 반영하며, 요인 2와 요인 5는 자녀의 부정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AMOS 23.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5요인 모형과 양면성을 반영한 위계적 2 요인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3에 두 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였다. RMSEA는 .06 이하일 때 매우 좋으며, .60~.80 이면 좋은 것으로(Hu & Bentler, 1999),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매우 좋고, .80 이상이면 괜찮은(above average)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agozzi & Yi, 1988). 그러므로 두 모형 모두 적합도는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모형 1과 모형 2를 비교해보면, 카이자승 차이가 나타나긴 하였지만[$\triangle\chi^2(5, N=210)=11.869, p<.05$], 모형 간 적합도의 차이는 아주 미미하였다[△CFI= -.002, △TLI= -.002, △RMSEA= .000]. 그러므로 모형 2가 기각되지 않으며 5개의 1차 요인의 관계가 2개의 2차 요인으로 잘 설명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중년 성인이 지각한 자녀 의미의 하위 5개 요인은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인 상위 2개 요인으로 묶어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모형 2를 그림 1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모형 1과 2에서 제안된 상위 2개 요인 및 하위 5개 요인의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AVE(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는 .5 이상일 때, 개념신뢰도는 .7 이상일 때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본다(우종필, 2012;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모형 1의 하위 5개 요인들의 개별 문항들과 하위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별 문항들의 표준화 계수의 범위는 .52~.94로 타당하며, AVE는 .5 이상이며 개념신뢰도도 .7 이상으로 모두 적절해, 하위 5개 요인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모형 2의 상위 요인과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도 표준화된 계수는 .69~.99 범위로 타당하고, AVE와 개념신뢰도도 적절해 상위 2개 요인의 수렴 타당도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년 부모의 자녀의 의미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각 하위 3 요인, 2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표 3. 중년 부모의 자녀의 의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모형	X^2	df	p	CFI	TLI	RMSEA
모형1(5요인 모형)	603.885	289	.000	.892	.879	.072
모형2(위계적 2요인 모형)	615.754	294	.000	.890	.878	.072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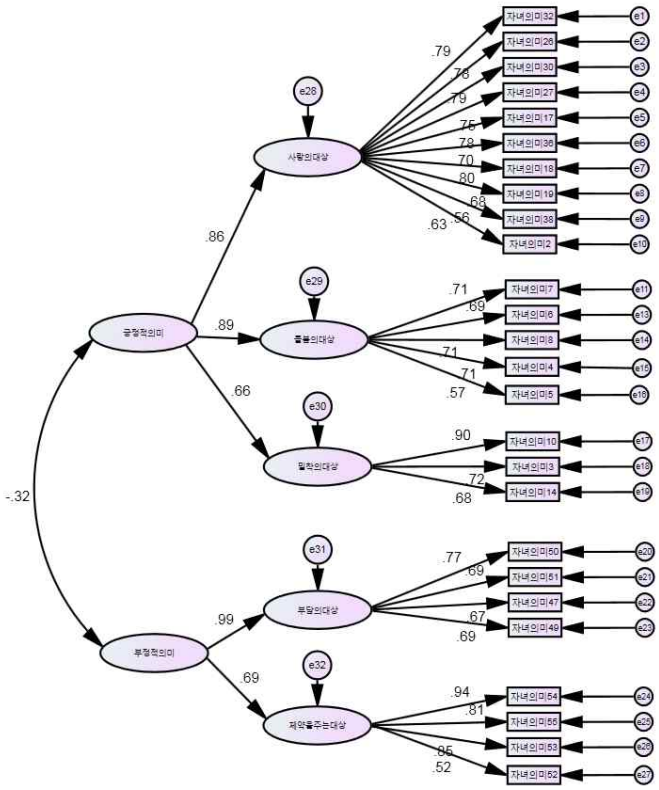


그림 1. 중년 성인의 자녀의 의미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위계적 2요인 모델

공존 타당도 및 예언 타당도 검토

자녀 의미의 양면성의 공존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공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박선영(2013)의 다차원적 의미 척도(MMLS) 중 자녀 양육 및 부모되기 의미 요인과 전반적 삶의 의미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 보았다.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자녀 양육과 부모 되기 의미와는 정적 상관을 [r=.54, p<.01] 나타내고, 긍정적 의미의 하위 3개 요인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다[각각 r=.57, p<.01; r=.48, p<.01; r=.32, p<.01]. 반면 자녀의 부정적 의미는 자녀 양육과 부모되기 의미와 상관이 없었으며[r=-.09, *ns*], 하위 요인 2개 중 요인 2는 부적 상관을[r=-.16, p<.05], 요인 5는 상관이 없었다[r=.00, *ns*].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전반적 삶의 의미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그 하위 요인들 또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r=.29, p<.01; r=.33, p<.01; r=.25, p<.01]. 반면 자녀의 부정적 의미는 전반적 삶의 의미와 부적 상관을 보이고 하위 2개 요인 또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r=-.21, p<.01; r=-.23, p<.01; r=-.16, p<.05]. 이는 본 연구 1에서 분석한 자녀의 의미 요인이 부모되기 의미와 전반적 삶의 의미를 반영한 공존 타당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이는 자녀의 의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다름을 보여준다.

www.kci.go.kr

표 4. 자녀의 의미 요인 및 다른 요인 간 상관

	자녀양육과 부모되기 의미	삶의 의미	우울	관계 만족도	친밀감	관계 스트레스	양가감정
자녀 긍정 의미	.54**	.29**	-.20**	.35**	.40**	-.21**	-.32**
요인 1	.57**	.33**	-.30**	.41**	.43**	-.24**	-.37**
요인 3	.48**	.25**	-.21**	.40**	.26**	-.21**	-.30**
요인 4	.32**	.17**	.00	.09	.32**	-.09	-.15*
자녀 부정 의미	-.09	-.21**	.38**	-.37**	-.22**	.46**	.60**
요인 2	-.16*	-.23**	.39**	-.42**	-.23**	.46**	.61**
요인 5	.00	-.16*	.32**	-.27*	-.17*	.39**	.49**

*p<.05, **p<.01, ***p<001

자녀의 의미 요인의 예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적응과 관련된 지표로 우울과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우울과 부적상관을 나타냈고[r=-.20, p<.01], 하위 요인 중 요인1과 요인 3은 부적 상관을[각각 r=-.30, p<.01; r=-.21, p<.01], 요인 4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r=.00, ns]. 자녀의 부정적 의미전체와 각 하위요인은 모두 우울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r=.38, p<.01; r=.39, p<.01; r=.32, p<.01].

다음으로 자녀의 의미 요인의 관계의 질에 대한 예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변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관계 만족도와 친밀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각각 r=.35, p<.01; r=.40, p<.01], 관계 스트레스와 양가 감정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21, p<.01; r=-.32, p<.0]. 그러나 자녀의 부정적 의미는 관계 만족도와 친밀감과는 부정 상관을[각각 r=-.37, p<.01; r=-.22, p<.0], 관계 스트레스와 양가 감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46, p<.01; r=.60, p<.01].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개인의 적응과 자녀와의 관계의 질에 대한 예언 타당도를 가짐을 보여준다.

연구 2

연구 대상

부산, 울산에 거주하는 45세~65세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전통 시장, 지역 사회 친교 모임 등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총 216명(남 99명, 여 11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모형에서 추정하는 미지수의 5~10배 크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Bentler & Chou, 1987) Anderson과 Gerbing (1988)은 적어도 15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구 2의 표본 크기는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54.41세(SD=5.90),

www.kci.go.kr

평균 자녀수는 2.13명이었다(*SD*=.62).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종교는 불교가 49.5%(10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교 25.0%(54명), 기독교 15.3%(33명), 천주교 5.6%(12명), 기타 4.2%(9명) 등 순이었다. 경제상태는 보통 57.4%(124명), 동년배보다 나쁨 19.4%(42명), 동년배보다 좋음 16.2%(35명), 동년배보다 매우 나쁨 4.6%(10명), 동년배보다 아주 좋음 0.5%(1명) 등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50.5%(109명)로 가장 많았고, 대졸 34.3%(74명), 중졸 9.7%(21명), 초졸 1.4%(3명), 대학원졸 이상 2.8%(6명) 등 이었다. 지각된 건강은 보통이 51.4%(111명), 좋음이 39.4%(85명), 나쁨이 4.6%(10명), 매우 좋음이 3.2%(7명), 매우 나쁨이 0.5%(1명) 등이었다.

측정 도구

자녀의 의미

연구 1을 통해 확인한 자녀의 의미를 측정하는 26문항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의미는 하위 3개 요인인 사랑의 대상, 돌봄의 대상, 밀착의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적 의미는 부담의 대상과 제약의 대상의 2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적 일치도 cronbach' α를 살펴보면, 사랑의 대상 요인은 .93, 돌봄의 대상은 .80, 밀착의 대상은 .77, 전체 긍정적 의미는 .92였다. 부담의 대상 요인의 cronbach' α는 .81, 제약의 대상은 .87, 부정적 의미 전체는 .89였다.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부정적 측면: 갈등

조윤주(2002)가 사용한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와 세대 차이가 있어서인지 가치관의 갈등을 느낄 때가 많다.', '자녀와 성격이나 마음이 잘 맞지 않는다.', '사실상 자녀에게 크고 작은 불만이 많다.' 등 총 11문항으로, 5점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평정하였고 신뢰도는 .88이었다.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긍정적 측면: 보살핌 및 존중과 배려

안정신 등(2012)이 개발한 성숙한 노화 척도 중 자녀와의 관계 요인 중 보살핌, 존중과 배려의 총 2개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보살핌은 5문항으로 '자녀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 '나는 자녀의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 준다.' 등이 있고, 존중과 배려는 '나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준다.', '나와 내 자녀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준다.' 등 6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보살핌은 .80, 존중과 배려는 .90이었다.

쾌락주의적 행복: 주관적 안녕감

쾌락주의적인 관점의 행복인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인지적 요소인 삶의 만족은 삶의 만족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였고, 권석만(2008)이 번안한 것이다. '내 인생의 여건은 좋은 편이다.',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 등 총 5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이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삶의 만족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중 정서적 요소인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

www.kci.go.kr

한 한국인의 행복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중 긍정 정서 형용사로는 '즐거운', '편안한', '행복한' 등 3개, 부정 정서에는 '짜증나는', '부정적인', '무기력한' 등 3개 형용사를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평정하였고(1=전혀 느끼지 않았다, 5=항상 느꼈다) 긍정정서의 신뢰도는 .91, 부정정서의 경우 .84이었다.

행복주의적 행복: 심리적 안녕감

행복주의적 관점의 행복인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을 측정하기 위해 Ryff (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조윤주(2006)가 재구성한 18문항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평정하였으며 신뢰도는 .77이었다.

연구 2 결과

자녀의 의미, 관계의 질 및 행복 간의 상관 관계 분석

자녀의 의미, 관계의 질 및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별에 따라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및 다른 요인들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른 요인들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의 의미에서만 성차가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자녀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모두 높았다[각각 t=-2.08, p<.05; t=-2.46, p<.05].

다음으로 각 요인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자녀의 부정적 의미와는 상관이 없었으며[r=-.12, *ns*], 자녀와의 관계의 질의 긍정적 측면인 보살핌 및 존중과 배려와는 정적 상관을[각각 r=.45, p<.01; r=.36, p<.01], 관계의 질의 부정적 측면인 관계 갈등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r=-.13, *ns*].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소인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와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r=.03, ns; r=.06, *ns*; r=.04, *ns*] 심리적 안녕감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18, p<.01]. 자녀의 부정적 의미와 다른 요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보살핌 및 존중과 배려와는 부적 상관을[각각 r=-.14, p<.05; r=-.21, p<.01], 관계 갈등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58, p<.01]. 자녀의 부정적 의미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소인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각각 r=-.29 p<.01; r=-.36, p<.01], 부정 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r=.27, p<.01]. 심리적 안녕감과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r=-.37, p<.01].

보살핌은 존중과 배려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r=.64, p<.01], 관계 갈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26, p<.01]. 보살핌은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각각 r=.20, p<.01; r=.17, p<.05], 부정 정서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r=-.10, *ns*] 심리적 안녕감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r=.23, p<.01]. 존중과 배려는 관계 갈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41, p<.01],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인 삶의 만족과 긍정정서 및 심리적 안녕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각각 r=.20, p<.01; r=.24, p<.01; r=.28, p<.01], 부정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17, p<.05]. 관계 갈등은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및 심리적 안녕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각각 r=-.33, p<.01; r=-.39, p<.01; r=-.46, p<.01], 부정 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42, p<.01].

www.kci.go.kr

표 5. 각 요인들 간의 상관

	1. 자녀 긍정 의미	2. 자녀 부정 의미	3. 보살핌	4. 존중과 배려	5. 관계갈등	6. 삶의 만족	7. 긍정 정서	8. 부정 정서	9. 심리적 안녕감
2	-.12								
3	.45**	-.14*							
4	.36**	-.21**	.64**						
5	-.13	.58**	-.26**	-.41**					
6	.04	-.29**	.20**	.20**	-.33**				
7	.06	-.36**	.17*	.24**	-.39**	.41**			
8	.04	.27**	-.10	-.17**	.42**	-.46**	-.42**		
9	.18**	-.37**	.23**	.28**	-.46**	.46**	.47**	-.51**	
M(SD)	4.11(.51)	2.63(.72)	3.79(.51)	3.82(.54)	2.61(.58)	2.99(.63)	3.61(.74)	2.69(.80)	3.53(.36)
	남: 4.04(.50)	2.50(.71)	3.77(.52)	3.87(.55)	2.55(.58)	3.06(.61)	3.61(.73)	2.60(.73)	3.59(.35)
	여: 4.18(.52)	2.74(.72)	3.80(.51)	3.81(.51)	2.66(.59)	2.94(.64)	3.62(.74)	2.77(.85)	3.48(.36)

관계의 질의 긍정적 측면을 측정한 요인은 보살핌 및 존중과배려이며, 부정적 측면의 요인은 관계갈등임.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임.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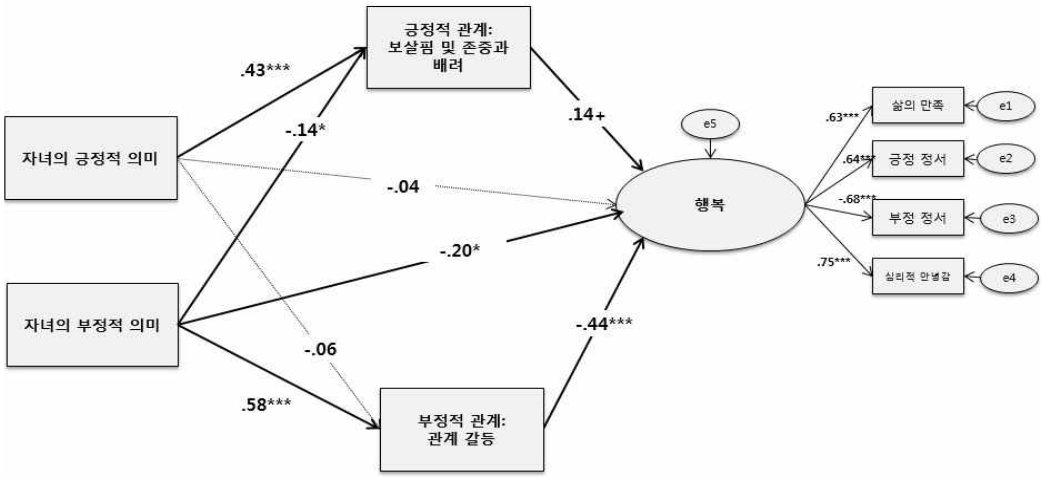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행복 관련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은 긍정 정서 및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각각 r=.41, p<.01; r=.46, p<.01], 부정 정서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r=-.46, p<.01]. 긍정 정서는 부정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r=-.42, p<.01], 심리적 안녕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r=.47, p<.01]. 부정 정서와 심리적 안녕감 또한 부적 상관이었다[r=-.51, p<.01].

상관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긍정적 관계의 질과 행복과 정적 상관이 있고, 반면 자녀의 부정적 의미는 긍정적 관계의 질과는 부적 상관을 긍정적 관계의 질과는 정적 상관을 행복과 관련된 요인과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의 긍정적 의미가 높은 사람은 긍정적 관계의 질 점수가 높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녀의 부정적 의미가 높은 사람은 자녀를 보살피고 존중하고 배려를 적게 하고, 관계 갈등은 높고 행복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녀의 의미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자녀 의미의 양면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의 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3.0프로그램을 이용해 모형 검증을 실

www.kci.go.kr



+ p< .06, *p < .05, **p <.01, ***p <.001

그림 2. 자녀의 의미와 관계의 질 및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모형

시하였다(그림 2 참조). 분석 전 관련 요인들의 문항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왜도는 절대값 3.0 미만, 모든 첨도는 절대값 10.0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Kline, 2011) 분석이 가능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수용가능하였다[χ^2=19.196, p>.05; RMSEA=.042, CFI=.989, TLI=.977]. 결과를 살펴보면(표 7 참조),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의 질인 보살핌 및 존중과 배려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β=.43, p<.001], 반면 자녀와의 부정적 관계의 질인 관계 갈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06, ns]. 자녀의 부정적 의미는 보살핌 및 존중과 배려에 부적 영향을[β=-.14, p<.05], 갈등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β=.58, p<.001].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행복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β=-.04, ns]자녀의 부정적 의미는 직접적으로 행복을 낮추었다[β=-.20, p<.05]. 자녀 관계의 질의 긍정적 지표인 보살핌 및 존중과 배려는 행복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고[β=.14, p<.06], 자녀와의 관계의 질의 부정적 지표인 관계 갈등은 행복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β=-.44, p<.001].

자녀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관계의 질을 거쳐 행복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표 8 참조). 자녀의 긍정적 의미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의 질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은 .002～.147로 나타났고, 간

표 6. 자녀의 의미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부모 모형	19.196	14	.158	.989	.977	.042

www.kci.go.kr

표 7. 자녀의 의미 모형의 결과

경로	B	S.E	C.R.	p	β
자녀의 긍정적 의미 -> 보살핌 및 존중과 배려	.398	.056	7.087	.000	.430
자녀의 긍정적 의미 -> 관계 갈등	-.063	.063	-1.005	.315	-.056
자녀의 부정적 의미 -> 보살핌 및 존중과 배려	-.094	.040	-2.356	.018	-.143
자녀의 부정적 의미 -> 관계 갈등	.464	.045	10.330	.000	.576
보살핌 및 존중과 배려 -> 행복	.120	.065	1.850	.064	.144
관계 갈등 -> 행복	-.298	.063	-4.755	.000	-.438
자녀의 긍정적 의미 -> 행복	-.031	.056	-.561	.575	-.040
자녀의 부정적 의미 -> 행복	-.110	.045	-2.468	.041	-.200
삶의 만족 -> 행복	1.000	-	-	-	.633
긍정 정서 -> 행복	1.185	.162	7.336	.000	.639
부정 정서 -> 행복	-1.367	.178	-7.672	.000	-.682
심리적 안녕감 -> 행복	.673	.083	8.089	.000	.746

표 8. 자녀의 의미 모형의 직접·간접·총 효과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95% 신뢰구간		p
자녀의 긍정적 의미 -> 보살핌 및 존중과 배려	.473	.473	-			
자녀의 긍정적 의미 -> 관계 갈등	-.056	-.056	-			
자녀의 부정적 의미 -> 보살핌 및 존중과 배려	-.143	-.143	-			
자녀의 부정적 의미 -> 관계 갈등	.576	.576	-			
자녀의 긍정적 의미 -> 행복	.046	-.040	.086	.002	.147	.041
자녀의 부정적 의미 -> 행복	-.473	-.200	-.273	-.240	-.088	.003

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9, p<.05]. 자녀의 부정적 의미가 관계의 질을 거쳐 행복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95% 신뢰구간이 -.273~-.088로 유의하였다[β=-.27, p<.01]. 요약하면,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보살핌 및 존중과 배려를 통해 행복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부정적 의미는 직접 행복을 낮출 뿐 아니라, 보살핌 및 존중과 배려와 관계 갈등을 통해 행복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긍정적 의미 및 부정적 의미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www.kci.go.kr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의 전환기인 중년 부모가 지각한 대학생 자녀 의미의 양면성을 확인하고, 이 양면성이 부모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매개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의 결과, 중년 부모의 자녀의 의미 구조를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으로 살펴본 결과, 자녀 의미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사랑의 대상', '돌봄의 대상', '밀착의 대상'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자녀의 부정적 의미는 '부담의 대상'과 '제약을 주는 대상'의 하위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중년 부모는 대학생 자녀를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자신으로 여기기도 하며,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개인의 생활에 제약을 주는 존재로도 지각하고 있다. 이는 자녀 가치와 부모됨의 동기와 관련된 연구에서 시사한 바와 유사하게(김연숙, 2014; 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Albert & Trommsdorff, 2014; Kirchner & Seaver, 1977) 자녀 의미 또한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면성을 가진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특히 연구 1에서 드러난 자녀의 긍정적 의미의 하위 요인 중 '밀착의 대상' 요인은, 한국 문화의 특수적인 자녀의 의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분신과 인생의 목적으로 여겨 자녀와의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데(이운기, 2005; 최인재, 2006)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한국의 부모 자녀 관계의 고유성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 1에서 자녀 의미의 양면성 상위 2개 요인 및 하위 5개 요인의 공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의미와 전반적 삶의 의미와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부모 되기 요인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삶의 의미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부모되기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부정적 의미는 삶을 덜 의미있게 지각하고 부모되기를 덜 의미있게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자녀의 의미의 예언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를 보면,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관계 만족도, 친밀감과는 정적 상관을, 관계 스트레스 및 양가감정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자녀의 부정적 의미는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관계 만족도 및 친밀감과는 부적 상관을, 관계 스트레스 및 양가감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에게 자녀는 긍정적 정서를 제공하는 존재인 동시에 긴장감과 부담을 경험하게 만드는 존재이므로(Sherwood, Given, Given, & Von Eye, 2005; Vitiliano, Zhang, & Scanlan, 2003) 부모의 안녕감에 복잡한 함의를 지닐 수밖에 없다(Ward, 2008). 연구 1의 타당도 검증 결과는 자녀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행복과 적응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확인된 자녀 의미의 양면성 각각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연구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어머니들이 아버지에 비해 자녀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www.kci.go.kr

의미 모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유교의 영향을 받는 한국사회에서 어머니는 돌봄의 역할로, 아버지는 경제적 부양의 역할을 행사해왔다. 자녀들도 아버지는 엄격한 사람으로 어머니는 인자하고 더 편안하고 친밀한 사람으로 지각한다(강완숙, 2000; 박영신, 김의철, 2004; 최인재, 2006). 김세영과 정태연(2013)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를 인생의 전부로 보고, 삶에서 최우선시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권리나 욕구를 빈번하게 포기하며 희생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간주하는데 이는 자녀에게로 향한 부모의 사랑 표현이자 동시에 부모의 개인적 삶에 대한 제약을 함의한다. 한국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자녀를 좀 더 사랑하고, 돌보며 밀착의 대상으로 여기는 동시에 이로 인한 부담과 제약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자녀 의미의 양면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으로 각기 다른 차별적 경로로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중년 부모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많이 부여할수록 자녀를 더 많이 보살피고,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긍정적 관계의 질을 높이게 되고 이를 통해 중년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높였다. 그러나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자녀와의 관계의 질의 부정적 측면인 관계 갈등을 낮추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중년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의미를 많이 부여할수록 자녀에 대한 보살핌 및 존중과 배려를 덜하게 되며 관계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는 부모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중년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의미를 많이 부여할수록 직접적으로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을 낮췄다.

연구 2의 결과는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을 높이고, 부모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 의미를 높이고 부정적 의미를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부정적 의미를 다루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자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관계의 질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 부모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해 개인적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는 부모 스스로가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더 많이, 부정적 의미를 더 적게 부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자녀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며 갈등을 줄여 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의미 부여(meaning making)라는 기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미는 주관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Heintzelman & King, 2014), 의미 부여란 개인이 경험한 일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통합하여 이해하는 능동적 과정이다(Baumeister & Vohs, 2002). 의미 부여는 외상사건이나 암과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고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Davis, Wortman, Lehman, & Silver, 2000; Gillies & Neimeyer, 2006)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vernier & Willoughby, 2012).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업이므로(Nomaguchi & Milkie, 2003), 자녀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경험의 어려움을

www.kci.go.kr

이해하고, 양육의 경험을 불운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며 자녀가 주는 긍정적 가치를 재발견한다면, 부정적 의미는 감소하고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긍정적 관계의 질을 매개로, 부정적 의미는 긍정적 관계와 부정적 관계의 질 모두를 매개로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적절히 보살피고 갈등을 줄이는 관계의 질에 대한 개입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청년 자녀는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자 하는데(Schaffer, 2008)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갈등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담이나 임상 등의 현장에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개입이나 중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년기의 과업과 삶의 질 치료(Quality of Life Therapy; QOLT)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삶의 질 치료는 Frisch(2006)가 긍정심리치료를 인지치료와 혼합하여 삶의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접근으로 제안하였다. 삶의 질 치료는 열여섯 가지의 삶의 기능 영역-사랑, 친구, 자녀, 건강, 자존감, 목표와 가치/영적인 삶, 돈, 직업, 여가, 학습, 창의성, 사회봉사, 친지, 집, 이웃, 공동체-으로 나누어, 전체 삶의 목적에 걸맞게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이 특정 삶의 영역에서 만족하지 못한 경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방법을 찾고 실행하도록 한다(Magyar-Moe, 2009). 그리고 상황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사고의 오류나 왜곡을 수정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특정 삶에 대한 목표나 만족감의 기준을 재평가하고 재구조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구분하도록 돕는다. 궁극적으로는 삶의 열여섯 가지 영역 각각의 만족감을 높이면서 전반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중년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중시하고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8), 자녀의 교육 성취에 강하게 관여하여 경제적 부담은 물론 기러기 아빠 현상과 같이 가족 구성원의 희생까지도 마다 않기도 한다(이종각, 2003). 그러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부부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경제적 부담이 강화되고 직업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커지는 등 부정적 의미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삶의 질 치료는 이런 과도한 희생이 불러올 수 있는 자녀의 부정적 의미를 완화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제 중년 성인은 자녀와의 관계 변화와 맞물려 부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는 시기이다(임재연, 김지현, 2014). 또한 중년기는 생산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이므로 직업에서 유능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Ackerman, Zuroff, & Moskowitz, 2000). 즉 중년 부모는 삶의 여러 영역 중 자녀에게 과도한 희생을 하는지를 점검하고 달라진 부부 관계에 몰두할 수 있고, 직업적인 성취에 매진할 수 있고, 여가 활동 등 다른 영역에서의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균형을 찾는다면 부모의 행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도 중년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긍정적 의미를 높이고 부정적 의미를 낮추도록 돕는 과정도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부터 중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80억 규모의 경력

www.kci.go.kr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며, 중년 특화 훈련 교사 과정 및 중년 적합 직무 고용 장려금을 두 배 이상 확대 하는 등 중년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에 8조 7천억원을 투자해 생활 SOC 확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국민 체육센터 160곳 건립, 시군구 단위의 작은 도서관 243개 설치, 노후 도서관 북카페로 리모델링,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개보수,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확충,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바람숲길 10개 조성 등이 있다. 이러한 실제적 지원들은 부모가 경험하는 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개인적 및 사회적 활동의 제약 등을 실제로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구조적 차원의 지원으로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부정적 의미들이 감소될 때 부모 자녀 관계의 질과 개인 행복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것이 있다. 최상진과 김기범(2011)은 한국인의 '미운 정 고운 정'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는 것이 가족관계라고 하였다. 가족 관계는 싫으나 좋으나 함께 살지 않으면 안되고, 개인의 사적인 특성이 그대로 노출된 관계이고, 종결할 수 없이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관계이다(최상진, 김기범, 2011). 이 과정에서 상대의 나쁜 점, 미운 점, 좋은 점 등을 동시에 체험하게 되어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엉킨 미운 정 고운 정이 생겨나는 것이다. 무자식 상팔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등의 속담은 특히 부모에게 자녀가 주는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렇게 한국인의 심리학과 관련된 자녀의 양면성을 살펴보고, 자녀 의미의 양면성이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경로에 대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자녀를 둔 부모, 중년 성인 자녀를 둔 노인 부모 등 다양한 발달 주기의 자녀의 의미 연구를 통해 자녀의 의미의 양면성의 변화와 연령차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자녀 의미의 양면성이 높으므로,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자녀 의미와 그 영향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모 자녀 관계 이외의 부부 관계나 다른 가족 관계에 대한 가족 의미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러 연령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관계의 유형별 가족 의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족 의미의 양면성을 좀 더 심도 있게 확인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넷째, 한국인만의 특수한 의미인 밀착의 대상의 의미가 부모 뿐 아니라 자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부모와 자녀 쌍의 데이터를 수집해 짝 분석(paired analysis)을 실시한다면 부모 자녀 간 의미와 영향을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특유의 자녀에 대한 희생이 어떻게 지나친 희생으로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부담과 제약의 부정적 의미로 지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란혜 (2000).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자녀양육 행동의 비교. 아동학회지, 21(2), 119-133.

강완숙 (2000). 지각된 부와 모의 가치, 부/모-

www.kci.go.kr

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곽금주, 민하영, 김경은, 최지영, 전숙영 (2011). 중년 직장 남성의 가족관계, 가족외 관계 및 직무만족이 행복심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발달학회지, 18(3), 115-133.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권용은, 김의철 (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11-226.

김미숙 (2015). 자녀가치 국제비교. 이슈앤포커스, 2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조성호, 최은진, 홍석표, 이주연, 강지원, 권소일 (2014).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가족변화 · 사회변화 국제비교. 2014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영, 정태연 (2013). 한국 어머니에게 자녀가 갖는 삶의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2013(1), 149-149.

김연숙 (2014). 부모용 양육의미척도 개발 연구: 영아 어머니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109-142.

김의철, 박영신, 박선영 (2012).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과 행복의 조건 및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간발달연구, 19(2), 197-225.

김의철, 박영신, 탁수연 (2002). IMF 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1), 103-139.

김인기, 이제경 (2009). 대학생과 모, 부의 애착관계 지각에 따른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차이. 상담학연구, 10(3), 1521-1537.

김지원, 이정윤 (2014). 부자유친성정과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3), 97-120.

김진희 (2005).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과 유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99-111.

문순덕 (2007). 대학생과 부모집단의 자녀가치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정희, 안정신 (2014).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양가감정 탐색. 한국노년학, 34(2), 409-429.

박경애 (1992). 임산부의 자녀관: 성선호와 임신동기. 대한가정학회지, 31, 25-34.

박선영 (2013). 삶의 의미와 심리적 건강의 관계: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와 의미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수영, 이재연 (2005).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189-200.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10).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간 심리특성 차이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1(4), 79-113.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 자녀 관계: 자기 개념과 가족 역할 인식의 토착 심리 탐구. 서울: 교육 과학사.

박영신, 김의철 (2007). 삶의 질 질문지. 미출간.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99-429.

www.kci.go.kr

박영신, 김의철, 김미숙 (2012).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세대의 자녀관련 인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1), 127-152.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간발달연구, 16, 109-141.

박윤조, 김성현 (2012).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0(3), 1-18.

박주현 (2012).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 및 양육행동과 영아 발달: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첫 자녀 출산 후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자녀가치, 양육지식, 자녀미래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5(5), 15-35.

송지은, Marks, N. F. (2006).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부모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 종단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6(3), 581-599.

안정신, 정여진, 정영숙, 서수균, Cooney, T. M. (2012). 성숙한 노화척도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선정 연구. 한국가족 관계학회지, 17(1), 129-149.

안지선, 정혜정 (2012). 중년기 은퇴로의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65-85.

안지연 (1992).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혜성 (2018. 7. 5). 공무원, 유연 근무제 이용률 1년새 2배 이상 증가. 법률저널. Retrieved from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66.

양순미 (2004). 성별에 따른 농촌부부의 행복정도와 가족건강성 변인의 효과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536-172.

오정숙, 박영신, 김의철 (2007). 고등학생과 부모 집단의 자녀가치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327-353.

옥선화, 이기춘, 이기영, 이순형, 공인숙 (1991).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135-154.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원두리, 김교헌,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유계숙, 정현숙 (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유안진, 김연진 (1987). 부모교육. 서울: 정문사.

이선미, 김경신 (2012). 기혼 남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3), 3-22.

이영미, 민하영 (2006). 아버지의 육아 양육 참여에 대한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93-101.

이운기 (2005). 자아분화와 우리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장주 (2002).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제작과 타

www.kci.go.kr

당화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종각 (2003). 교육열 올바로 보기: 그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서울: 원미사.

임재연, 김지현 (2014). 중년기 성인의 부부친밀감과 노화불안과의 관계에서 자녀 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1131-1149.

장휘숙 (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15-130.

정미라, 강수경 (2013). 임신기 부모의 생활만족도와 자녀가치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0, 85-107.

정여진. (2011). 노인의 부부친밀감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영숙, 조설애 (2013). 삶의 의미 원천과 의미에 대한 노력이 대학생과 중년 성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507-531.

정현숙 (2009). 부모-대학생 세대 간 갈등 사례 연구: 실제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 7-49.

조복희, 정민자, 김연하 (2007).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념 양상과 자녀에 대한 가치 및 부모 부양의무감간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3, 22-47.

조윤주 (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갈등 및 부양 의무감과 부모 부양 의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경선, 황현주 (201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효학연구, 20, 159-190.

최명선, 문은미 (2009).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이 정서표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1), 43-55.

최미경, 김영희, 정혜숙 (2014). 어머니의 원가족 부모관계와 부부 관계가 유아기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3), 221-237.

최상진 (1994).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제7집, 213-237.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최상진, 김기범 (2011). 문화 심리학: 현대 한국인의 심리 분석. 서울: 지식 산업사.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 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1994(1), 65-82.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부자유친 성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59-1076.

최인재 (2006).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상담학연구, 7(3), 761-773.

통계청. (2018). 2017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결과.

허만세, 박병선, 배성우 (2015). 한국어판 축약형 CES-D 척도의 측정불변성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2), 313-339.

Ackerman, S., Zuroff, D. C., & Moskowitz, D. S. (2000). Generativity in midlife and young adults: Links to agency, communion,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0*(1), 17-41.

Albert, I., & Trommsdorff, G. (2014). The role of culture in social development over the life

www.kci.go.kr

span: An interpersonal relations approach.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6*(2). https://doi.org/10.9707/2307-0919.1057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Antonucci, T., Akiyama, H., & Takahashi, K. (2004). Attachment and close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4), 353-370.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Guilford Press.

Baumeister, R. F., & Vohs, K. D. (2002). The pursuit of meaningfulness in life.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08-61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entler, P. M., & Chou, C. P.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6*(1), 78-117.

Birditt, K. S., Fingerman, K. L., & Zarit, S. H. (2010). Adult children's problems and successes: Implications for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5*(2), 145-153.

Bornstein, M. H., & Cheah, C. S. (2006). The place of "culture and parenting" in the ecological contextual perspective on developmental science. In K. H. Rubin& O. B. Chung (Eds.),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pp. 3-33), Hove, UK: Psychology Press.

Bradley, M. J., & Cafferty, T. P. (2001). Attachment among older adults: Current issue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3*(2), 200-221.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3), 267-283.

Comrey, A. L., & Lee, H. B. (1992).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Hillsdale, NJ: Lawrence Eribaum Associates.

Cooney, T. M. (1997).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adulthood. In D. Steve (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2nd ed.) (pp. 451-468). Hoboken, NJ: John Wiley & Sons.

Davis, G., Wortman, C. B., Lehman, D. R., & Silver, R. C. (2000). Searching for meaning in loss: Are clinical assumptions correct? *Death studies, 24*(6), 497-540.

De Goede, I. H., Branje, S. J., & Meeus, W. H. (2009). Developmental changes in adolescents'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1), 75-88.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Fingerman, K. L., Pitzer, L., Lefkowitz, E. S., Birditt, K. S., & Mroczek, D. (2008). Ambivalent relationship qualities between adults and their parents: Implications for the

www.kci.go.kr

well-being of both partie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6), 362-371.

Frisch, M. B. (2006). *Quality of life therapy.* Hoboken, NJ: Wiley.

Gillies, J., & Neimeyer, R. A. (2006). Loss, grief, and the search for significance: Toward a model of meaning reconstruction in bereavement.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9*(1), 31-65.

Greenfield, E. A., & Marks, N. F. (2006). Linked lives: Adult children's problems and their parents'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well 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2), 442-454.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Vol. 6).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Hattery, A. (2001). *Women, work, and families: Balancing and weaving.* Thousand Oaks, CA: Sage.

Heintzelman, S. J., & King, L. A. (2014). Life is pretty meaningful. *American Psychologist, 69*(6), 561-574.

Hicks, J. A., & King, L. A. (2009). Positive mood and social relatedness as information about meaning in lif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471-482.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Kirchner, E. P., & Seaver, W. B. (1977). *Developing measures of parenthood motivation.* University Park: Institute for Research on Human Resorces, Oennsylvania State University.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Knoester, C. (2003). Transitions in young adulthoo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offspring well-being. *Social Forces, 81*(4), 1431-1458.

Lowenstein, A. (2007). Solidarity-conflict and ambivalence: Testing two conceptual frameworks and their impact on quality of life for older family member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2), 100-107.

Magyar-Moe, J. L. (2009). *Therapist's guide to positive psychological interven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Mayer, B., Albert, I., Trommsdorff, G., & Schwarz, B. (2005). Value of children in Germany: Dimensions, comparison of generations, and relevance for parenting. In Trommsdorff, G. & Nauck, B. (Eds.), *The Value of childre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pp. 43-65). Legerich: Pabst Science.

McCubbin, H. I., Petterson, J. M., & Wilson, L. (1979).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FILE).*

www.kci.go.kr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Mikulincer, M., & Shaver, P. R. (2013). The role of attachment security in adolescent and adult close relationships. In J. A. Simpson & L. Campbell (Eds.), *The Oxford handbook of close relationships* (pp. 66-8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Nauck, B. (2007). Value of children and the framing of fertility: Results from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urvey in 10 societ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5), 615-629.

Nauck, B., & Klaus, D. (2007). The varying value of children empirical results from eleven societies in Asia, Africa and Europe. *Current Sociology, 55*(4), 487-503.

Nomaguchi, K. M., & Milkie, M. A. (2003). Costs and rewards of children: The effects of becoming a parent on adults' liv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2), 356-374.

Parke, R. D., & Ladd, G. W. (2016).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New York: Routledge.

Pillemer, K., & Suitor, J. J. (2002). Explaining mothers' ambivalence toward their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602-613.

Rabin, A. I. (1965). Motivation for parenthood.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and Personality Assessment, 29*(4), 405-413.

Rothbaum, F., Pott, M., Azuma, H., Miyake, K., & Weisz, J. (2000). The development of close relationship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aths of symbiotic harmony and generative tension. *Child Development, 71*(5), 1121-1142.

Ryff, C. D. (1995).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99-104.

Schwarz, B., Chakkarath, P., Trommsdorff, G., Schwenk, O., & Nauck, B. (2001). Report on Selected Instruments of the Value of Children Main Stud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Konstanz, Konstanz, Germany.*

Schwarz, B., Trommsdorff, G., Kim, U., & Park, Y. S. (2006). Intergenerational Support Psychological and Cultural Analyses of Korean and German Women. *Current Sociology, 54*(2), 315-340.

Seligman, M. E. P.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3-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ettersten, R. A. (2003). Age structuring and the rhythm of the life course. *Handbook of the life course* (pp. 81-98). Boston, MA: Springer

Shaffer, D. (200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Scarborough: Nelson Education.

Shaver, P. R., & Mikulincer, M. (2007). Adult attachment strategies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446-465). New York: Guilford Press.

Sherwood, P. R., Given, C. W., Given, B. A., & Von Eye, A. (2005). Caregiver burden and depressive symptoms analysis of common outcomes in caregivers of elderly patient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7*(2), 125-147.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www.kci.go.kr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Steinberg, L. (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1-19.

Tabachnick, B. G., & Fidel, L. S. (2007). Basic ANOVA: Logic of analysis and tests of assumptions. In B. G. Tabachnick & L. S. Fidel (Eds.), *Experimental design using ANOVA* (pp. 69-97). Belmont, CA: Thompson Brooks/ Cole.

Tavernier, R., & Willoughby, T. (2012). Adolescent turning points: the association between meaning-mak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8*(4), 1058-1068.

Trommsdorff, G. (2001). *Value of childre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 cross-cultural psychological study*. http://www.uni-konstanz.de/FuF/SozWiss/fg-psy/ag-entw/english.

Trommsdorff, G. (2006). Parent-child relations over the life-span: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K. H. Bubin & O. B. Chung (Eds.),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pp. 143-183). New York: Psychology Press.

Trommsdorff, G. (2009).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nd cultural Rvansmission.* Konstanz: Bibliothek der Universität Konstanz.

Trommsdorff, G., & Nauck, B. (2005). The value of children in urban and rural India: Cultural background and empirical results. In R. C. Mishra, B. Mayer, G. Trommsdorff, I. Albert, & B. Schwarz (Eds.), *The value of childre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Case studies from eight societies* (pp. 143-170). Lengerich: Pabst Science.

Trommsdorff, G., & Nauck, B. (2006). Demographic chang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6*(4), 343-360.

Trommsdorff, G., & Nauck, B. (2010). Introduction to special section for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alue of children: A concept for better understanding cross-cultural variations in fertility behavior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1*(5-6), 637-651.

Umberson, D. (1992). Gender, marital status and the social control of health behavior. *Social Science & Medicine, 34*(8), 907-917.

Veevers, J. E. (1973). The social meanings of parenthood. *Psychiatry, 36*(3), 291-310.

Velicer, W. F., & Fava, J. L. (1998). Affects of variable and subject sampling on factor pattern recovery. *Psychological methods, 3*(2), 231-251.

Vitaliano, P. P., Zhang, J., & Scanlan, J. M. (2003). Is caregiving hazardous to one's physical health?: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9*(6), 946-972.

Ward, R. A. (2008). Multiple parent-adult child relations and well-being in middle and later 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4), 239-247.

Whitbeck, L. B., Hoyt, D. R., & Tyler, K. A. (2001). Family relationship historie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quality, and

www.kci.go.kr

depressive affect among rural elderly peopl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0*(2), 214-229.

Zwick, W. R., & Velicer, W. F. (1986). Comparison of five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Psychological Bulletin, 99*(3), 432-442.

1차원고접수 : 2018.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8. 11. 16.
최종게재결정 : 2018. 12. 0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8, Vol. 31, No. 4, 167-197

The Effect of Ambivalence of Meaning of Children on Happiness in Middle-aged: Mediating Effect of Quality of Relationships

Seol-ae, Jo Young-sook, Ch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ambivalence of meaning of children on quality of relationships and happiness in middle aged par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examined by study 1 in 210 participants to identify contents and structure of meanings of children. The results showed that positive meanings of children were included of 3 subfactors as 'love', 'supporting' and 'attached', And negative meanings of children were constructed by 2 subfactors, 'burdened' and 'restrictive'. And study 2 was to identify the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s on quality of relationship and happiness in 216 parents. The result showed that mothers reported more higher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s than fathers. Also positive meanings enhanced their care, respect and consideration on their children and it also improved happiness of the parents. However, negative meanings were linked to increased positive quality of relationships and reduced conflict with children, while also enhancing happiness.

Key words : meaning of family, meaning of children, happiness, parent children relationships, middle aged

www.kci.go.kr